

“금속노조가 만든다, 노동참여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조, 정의로운 산업전환 운동 돌입 선언 ... “정부, 자본편향 산업전환 중단하라”

금속노조가 정의로운 산업전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가칭 공동결정법 입법으로 노동자를 산업전환 과정의 주체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6월 1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희생과 파괴가 없는 노동참여 산업전환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대기업 몰아주기식 산업전환을 비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재편은 자본 쪽으로 기운 불공정한 방식이다. 노동자, 작은 사업장 등 일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라며 “금속노조가 이를 막고 노동이 함께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첫 단추는 올해 금속산업 사업장 노·사가 맺을 산업전환협약이다”라며 “산업 재편기 노동자 고용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제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물려주는 데 산업전환협약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는 민주적인 산업전환과 노동자 참여를 제도로 보장하기 위



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방식으로 ‘공동결정법’ 입법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당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노조가 요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공동결정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산업전환 과정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6월 2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 전날인 23일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동결정법 입법 운동 돌입을 선언한다. 노조는 결의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친재벌·노동 배제 산업전환 정책 폐기를 요구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개별 사업장 요구를 알리기란 만만찮다. 노조는

“개별 사업장 역할도 필요하지만, 산업전환에 관한 모든 문제를 각 사업장 노사가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산별노조 강화와 산별노조 할 권리 확대를 주장했다. 노조는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기업별 교섭 강제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 ▲ILO 기준에 맞는 쟁의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동차·조선·철강·항공 업종 노동자들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직접 전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자본의 노동 배제 산업전환을 규탄했다. 부품사·상용차 등 산업전환 정책에서 소외된 사업장에 대한 시급한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우버스 노동자들 공장으로 돌아간다

백성학 영안모자 자본, 대우버스 자산매각에서 회사매각으로 방향 틀어

정리하고 철회와 공장 살리기를 결고 천막농성을 이어가던 자일대우 상용차(대우버스)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 지회·대우버스사무지회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시행했다. 대우버스지회 232명 조합원 중 220명이 투표해 199명(90.4%) 찬성, 대우버스사무지회 119명 조합원 중 96명이 투표해 73명(79.1%) 찬성으로 가결했다.

잠정합의안 가결에 따라 회사는 대우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6월 21일부로 철회하고 조업을 재개한다. 사측은 그동안 고집하던 자산매각 대신 회사매각으로 태도를 바꿨다.

대우버스 울산공장 정상 가동을 위해 복직 첫 한 달은 대우버스 노동자 전원이 출근한다. 인력을 재배치하고 공장 가동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2개월 차부터 공장 가동 상황에 맞춰 노·사협의로 인력을 운영

하고, 잔여인력에 대해서 유급순환 휴직을 시행한다.

해고 기간 9개월에 상응하는 임금 중 회사는 3개월분을 지급한다. 6개월분은 공개매각과 조기 공장정상화를 위해 노조가 한발 양보했다. 단, 회사가 정리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실업급여와 금속노조 장기투쟁지원금 6개월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 2021년 12월까지 노동부와 노조에 각각 돌려준다.

신일정밀지회, 지노위 중재로 213일만 현장 복귀

신일정밀지회는 노동자를 소모품 노예 취급하는 경영주와 민주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고용한 노조파괴 범죄자 이강훈 노무사에 맞서 2020년 10월 23일 투쟁에 나섰습니다. 2021년 5월 20일 사측의 일방적인 중재신청으로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하였습니다.

사측이 일방중재 신청을 한 5월 20일, 신일정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이 있었습니다. 중노위는 사측이 신청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한 가지를 추가해 노조가 제기한 일곱 가지 모두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5월 24일에 신일정밀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검찰로 기소의견

송치가 되었습니다. 신일정밀에서 불법행위를 자문하던 노조파괴 노무사 이강훈은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징계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부당노동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던 민씨 일가와 이미 한 번의 노조와해 시도로 범죄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노조파괴를 시도하던 노무사 이강훈은 검찰의 수사로 모든 범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신일정밀 노동자들의 213일간의 투쟁,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투쟁을 통해 연대의 힘을 배웠습니다. 단결된 힘으로 투쟁할 수 있었던 것은 금속노조와 각 지역지부의 연대 덕분입니다. 강원지역 동

지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회사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해 투쟁에 나섰고, 213일간 후회 없이 싸웠습니다. 비록 사측 일방중재로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합니다. 위험하고 더러운 작업환경은 그대로이며, 노무사 이강훈은 아직도 경영고문이라는 직함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 파란 깃발 곳곳이 지키며 민주노조 사수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손재동 신일정밀지회장 드림